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h1>보도자료</h1>	http://www.kisti.re.kr
대전(본원): 대외협력팀 박한철 042 - 869 - 0961 / 이종성 0976 / 강동기 0967 서울(분원): 대외협력팀 이승혜 02 - 3299 - 6185 문의: 최희운 정보서비스센터장(042-869-1870)		
배포번호 : 2014-25 배포일자 : 2014.07.01.(화)	매수 : 보도자료 2매	배포처 : 대외협력팀

2014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 학술대회 개최

- KISTI-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으로 국내 과기분야 학술지 국제화 노력 -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박영서, 이하 KISTI)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 이하 과총)와 공동으로 2014년도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7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국내 과학기술 학술지 편집인들이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국제화를 모토로 추진하였으며,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을 위한 행사는 아시아 최초이다.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과학 분야 학술지 편집인 등 14개국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KISTI와 과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 발행되는 각 학술지들의 현주소와 발전 노력들을 상호 공유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출판·편집 전략과 글로벌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편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가 교육도 지원한다.
-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7월 2일 첫날에는, 영국, 호주 등 10개국 160여명이 참여하며 4개의 세션별로 ▲1부: 아시아 각국 참가 에디터 발행 저널의 현주소 ▲2부: 포스터 발표 및 토론 ▲3부: 지역적 혹은 국제적 편집 조직에 대한 이해 ▲4부: 아시아 저널들의 국제적 노출 확대 방안 순서로 마련된다.

- 7월 3 ~ 4일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인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워크숍이 될 것이며,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나선다.
 - 7월 3일의 발표 세션은 크게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CrossRef 세션으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DOI 등의 학술 정보화 관련 핵심 요소들에 대한 서비스 개요와 현황에 대해 CrossRef 핵심 담당자인 레이첼 래미(Rachel Lammey)가 발표한다. 발행 저널의 브랜드 발전 방안으로, 학회 자체 노력을 통한 학술지 발전 경험과 국제적 출판사와의 계약 및 협력을 통한 학술지 국제화 경험 등을 발표할 것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성전자의 조은정 마케팅 상무이사가 삼성전자의 마케팅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행 저널의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과 실제 사례를 발표한다.
 - 7월 4일에는 학술 저널출판 분야 세계적 전문가인 PSP Consulting사의 피파 스마트(Pippa Smart)*가 저널 편집인을 위한 저널 발전 전략을 주제로 오전, 오후 총 5개의 세부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피파 스마트는 블랙웰 출판(Blackwell Publishing) 등 영국 유수의 학술출판사에서 저널출판 실무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했다. 전세계 과학학회지 편집인 기구인 ALPSP, 유럽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EASE)에 참여하면서 전문 편집인 기술, 출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 편집, 출판 전문가로서, 2007년에 'PSP Consulting'이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여 전 세계 편집인의 교육과 학술저널의 발전을 위해 쌓아온 지식을 널리 나눠주고 있다.
 - 각 강의 내용은 1) 학술지 출판 및 시스템, 서비스 관련 이해 및 국제적 환경 변화, 2) 민간 출판사와의 계약·협력에 따르는 장단점 3) 학술지의 약점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 해결하기 4) 학술지 발전을 위한 전략들 5) 발견한 발전 전략 및 방안을 이용한 학술지 발전 사례 순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를 과총과 공동주최하는 최희운 KISTI 정보서비스센터장은 “각국의 편집인들이 필요로 하는 국제적 학술지 편집, 출판 정책 및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 국내 과학 학술지의 품질과 위상을 높이는 기회는 물론 향후 아시아 과학학술지 편집인협회 구성과 학술지 동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끝)